



## 제2부 부문별 행정



### 제3편 총무국 \_ 제2장 문화관광과

제1절 / 문화예술 행정

제2절 / 관광홍보

제3절 / 문화재 행정

제4절 / 공보 행정

# 제1절 문화예술 행정

##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스포원파크, 금정구민체육관,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원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 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8」를 개최하여 지역산업(관광)연계형 축제의 성공을 거두었고, 축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개발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부산대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부산대학로 일원 야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문화공연 개최로 청소년·청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해 서동지역에 서동예술창작공간과 섯골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

####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개최

금정구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독창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문화에서 문화예술의 근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적 제215호인 금정산성과 민속주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 등지역특성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전통 역사 문화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8 축제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인 금정산성을 알리고, 금정산을 즐기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총 연장 18,845m인 금정산성을 주제로 한 금정산성 4대문 걷기 진행, 금정구민 축제기획단 'Makers'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화합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금정구민이 직접 프로그램의 핵심을 담당하는 참여형 축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정산성 수호대 '금정산성 동문 마법의 성', 산에서 내려온 금어 프로그램, 금정 명품 콘서트 'Open Theater', Good Day 콘서트, 금정놀이마



2018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1



2018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



2018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3



2018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4

당, 매직 프린지 쇼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축제 전야 기간 진행하여 남녀노소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체험프로그램인 금어잡기 체험, 산성 쿨 존, 산성마을 체험존, 금정문화 전통체험존, 금정구민 기획존 등은 아동이 좋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족단위 참여객들을 위한 즐길거리 또한 마련했다. Smile 금정존, 금정구 생활문화동아리 한마당, 주민 끼자랑 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금정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애乡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산 시민걷기대회, 금정 Food Talk Concert, 쥐락펴락 청소년 끼 경연대회, 금정사생대회, 금정백일장 등 축제와 부합되는 다양한 연계행사 운영을 통해 축제의 이미지 확립과 지역민 단합에 기여했다. 금정산성의 핵심 콘텐츠인 산성마을 체험존과 금정 맛집·멋집 특별전은 지역 특산물인 산성막걸리와 염소불고기 체험 및 시식행사를 제공하여 축제 이후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방문객들에게는 재방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부터 금정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는 고유문화의 우수성 등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금정산성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및 동문 일원 역사재현 주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 지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정산성과 연계한 대중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다양한 축제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정산성과 금정산성 막걸리 등 지역 특산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내에 소재한 범어사, 회동수원지, 스포원 등의 관광지를 연계

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정구는 향후에도 지역 축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제 주제(소재)와 관련된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및 집약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주민을 직접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힘쓸 계획이다.



금정 Food Talk concert 1



금정 Food Talk concert 2



금정사생대회 1



금정사생대회 2

##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 금정문화재단

문화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금정구 문화예술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로 행복한 금정」 조성을 목표로 금정구 문화정책 수립,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특색있는 지역축제 발굴, 생활권 내 문화예술활동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금정문화재단은 2016년에 실시한 문화지표 조사, 2017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이어 2018년에는 금정구 중기 문화발전 계획 「금정 문화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금정구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기획들이 금정구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

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8, 초등학교 운동장을 물놀이장으로 변형한 새로운 형태의 여름 문화프로그램인 부곡동 하와이, 청년문화 1번지 부산대학로 거리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다함께 즐기는 부산거리예술축제, 금샘 설화를 스토리텔링한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빛 축제 금어 빛 거리 등 특색있는 축제를 통해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정부의 문화정책과 발맞추어 문화 활동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서동 미로마을 일원에서는 지역고유 환경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용한 문화재생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학로 청년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청년문화예술 단체 협업을 위한 금정 프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청년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청년과 청년예술가가 구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장인 부산청년문화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세계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세계무형문화유산교실을 진행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유아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기반한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예술로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금정문화재단은 선순환적 문화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구민과 지역예술가와 함께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지역특유의 색깔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부산거리예술축제



금어 빛 거리



부곡동 하와이 1



부곡동 하와이 2

### ○ 금정문화원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우리지역 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해 첫 날 부산의 영산인 금정산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우리소리 우리 춤우리가락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통춤소리공연(국악한마당) 개최와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향토문화지 발간 등 구민화합과 전통문화의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유적지 역사탐방, 금샘문학상 공모 등 남녀노소와 전국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타 지역 문화원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로 지역문화 진흥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2018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 문화예술인 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연예인협회 9개 분과 4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주관 또는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17회 금정사생대회」, 「금정문예 제22집 발간」, 「제23회 금정백일장」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또한 금정구 문화예술인협회의 최대 행사인 제23회 금샘예술축제가 10.19.(금)부터 10.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예술제 기간 동안 협의회 내 9개 분과 협회가 각각 「깃발시화전(문인협회)」, 「금샘 서예전(서예협회)」, 「금샘 사진전(사진협회)」, 「금샘 미술전(미술협회)」, 「금샘 열린음악회(음악협회)」, 「금정의 예인 김온경의 춤 이야기(무용협회)」, 「청춘포차(연극협회)」, 「금샘 소리축제(국악협회)」, 「新 여로(연예인협회)」를 준비하여 지역 문화예술가들은 1년간 닦은 그 기량을 펼쳐 보이고,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23회 금샘예술축제



금샘 사진전(사진협회)

<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현황 >

계	문인 협회	미술 협회	음악 협회	무용 협회	연극 협회	사진 협회	서예 협회	국악 협회	연예인 협회
470	95	158	29	26	23	34	42	42	21

##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 부산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부산대 일원은 90년대 최고의 젊음의 거리였으나, 날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대학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 홍대거리 및 우수문화시설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 유일의 4개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대학로’를 형성하였고, 대학로 ‘어울마당’과 ‘문화나눔터’를 청년문화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청년문화 아티스트들과의 문화교류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신진예술가·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인재 육성을 확산시키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청년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조성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단체 반상회 ‘금정문화여지도’를 중심으로 단체간 협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예술체험 프로그램, 아트마켓, 버스킹공연, 스트리트 아트페어 등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외 청년예술가와 지역 청년예술가의 문화교류를 위한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거리예술축제’에는 해외 7개국 18개팀이 참여하여 거리예술을 체험하고 주민을 위해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rt Station 999’는 지역청년예술단체가 자발적인 기획으로 시작되어 조성된 대규모 프리마켓으로써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핸드메이드 프리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말 부산대학로를 찾는 방문객들의 인기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 ○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

침체되어 가는 부산대학로를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젊음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부산대 일원에 예술공연지원센터가 조성되었다. 2011. 12. 22.(목) 개소한 이래 예술공연지원센터는 부산대 일원의 다양한 청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매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운영 기치가 대학로 청년문화 활성화인 만큼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그 결과 지역청년과 문화예술기획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금정문화여지도’를 3회 추진하고 문화예술분야 공연, 미술, 댄스부문 멘토단의 멘토링 강연 ‘멘토링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다.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다목적홀 및 온천천 어울마당, 온천천 문화나눔터에

대해서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진행하여 184건(정기대관 22건, 수시대관 162건)의 실내외 공간대관을 통해 부산대학로 공연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축제성 행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도 꾸준히 시도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와 일반 주민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산 대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 서동예술창작공간 및 셋골문화예술촌 운영



서동예술창작공간



셋골문화예술촌



미로예술마을, 문화로 논 Day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동지역에 주민 밀착형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조성(지상 2층 529.62㎡), 다목적홀, 북카페, 작은도서관, 강의실, 갤

러리 등을 갖추고 2012. 6. 28. 개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2012년 개관이후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 「문화가 있는 날」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2017 「미로(美路)마을, 문화로 통한 Day」 (최우수상\_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8 「미로(美路)예술마을, 문화로 논 Day」,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내가 만드는 미술관 - 서동 작은미술관」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공간과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작은 도서관 도서대출 3,744권, 다목적실 대관 233건 등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예술 공간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설화 기반 유아대상 문화예술공연 ‘인형아!놀자!’, ‘금정문화지기’, ‘창작촌과 사랑방 손님’, ‘서동 미로(美路)마을 이야기’ 등 지역 스토리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지역스토리 콘텐츠(도서)를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미로(美路)마을, 다(多)모여라!’, ‘흥 넘치는 언니들’ 25회, ‘하루예술가’ 20회, ‘꿈꾸는 책 친구들’ 30회, ‘Story telling 동화랑 놀자’ 10회, ‘금빛나래 뮤지컬댄스’ 20회, ‘금빛나래 사물놀이’ 20회, ‘서동 잔칫날’, ‘섯골 대(大)반상회’를 진행하였으며 입주작가 정기 발표회 ‘소소(小笑)’를 14일간 개최하였다. 그리고 창작공간 대관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합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협력단체의 문화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서동예술창작공간과 더불어 서동지역의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위한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해 부산시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아 인근공간 주택건물(서부로 16번길 21-4)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작업공간인 ‘섯골문화예술촌’을 조성하였다. 지상2층 135.47㎡로 작업공간과 거주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섯골문화예술촌’이란 서동의 옛 지명인 ‘섯골’과 ‘문화예술촌’을 결합하여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입주작가 공모를 통하여 미술, 공공예술, 라탄공예 총 3개팀이 선정되어 입주를 마치고 창작활동 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층에는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문화사랑방을 조성하여 ‘섯골문화교습소’, ‘어린이 자율공방’, ‘서로배움 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OPEN 동아리’, ‘놀이로 한마당’, ‘문화쉼터(아트평상)’를 진행하며 셋골문화예술촌이 예술가 창작활동 공간에서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서동지역이 문화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섯골문화예술촌’을 필두로 예술가들의 창작인프라 구축 및 지역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서·금사회동지역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한다.

### 〈 문화 공간 현황 〉

계	문화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문예기념비	동상	김정환생가
21	1	3	2	2	2	9	1	1

### 〈 문화회관 현황 〉

명칭	소재지	좌석수	관리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구서동)	대공연장 868석	금정구청
		소공연장 330석	

### 〈 박물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1,900㎡	유물 20,943점 자료 29,685권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502㎡	유물 3,022건 33,855점 자료 912권	범어사
오륜대 한국 순교자박물관	금정구 오륜대로 106-1 (부곡동)	1,317.28㎡	유물 3,105점 자료 1,000권	한국순교 복지수녀회

### 〈 도서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서동도서관	금정구 서부로 76번길 5 (서동)	1,071.88㎡	도서 151,811권	부산시교육청
금정도서관	금정도서관로 33 (청룡동)	8,466㎡	도서 67,002권	금정구청

### 〈 미술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구 죽전1길 29(금성동)	271.4㎡	조각, 회화 등 305점	전예화
DOT 미술관	금정구 금샘로 35(장전동)	217.05㎡	조각, 회화 등 105점	홍명희

### 〈영 화 상 영 관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롯데시네마오투	금정구 중앙대로 1607(부곡동)	총 1,052석	차 원 천
메가박스 부산대	금정구 장전로12번길 55(장전동)	총 1,065석	김 진 선

### 〈 문 예 · 기 념 비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황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신정용열사 추모비	금정구 남산동 산1-1	'96. 4. 19.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 제2절 관광진흥

### 1. 관광자원 현황

금정구 전체 면적의 63%는 금정산이 점유하고 있으며, 금정산성을 중심으로 27개의 지정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고, 회동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이후 많은 트레킹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금정산, 금샘, 회동수원지 등은 금정구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이며, 부산최초의 생태숲 윤산 및 온천천은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금정산성과 범어사를 중심으로 역사 및 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이러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촌이 형성되고 있다.

그 밖에 금정구에는 한국의 4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성지가 위치해 있으며, 부산대 젊음의 거리, 서동미로시장 등 특화자원들이 입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화자원인 금정산성마을은 금정산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금정산성 문화체험촌, 금정산성 먹거리촌 등 마을만의 전통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부산대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카페거리, 쇼핑 등이 유명하고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등의 청년문화시설이 설립되면서 청년문화 콘텐츠 위주로 특화되고 있다. 그 밖에도 요산문화로 테마거리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인 서동미로시장 등 다양한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으로서 경부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산업도로 및 도시철도 1호선의 시발점으로 육로교통의 요충지이며, 노포동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각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산성터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범어사 양방향 도로가 조성되어 지역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 2. 관광인프라 구축 · 관광기반 마련

전통불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문화 체험 및 전통 문화체험 기회 제공 목적의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70억) 및 범어사 템플스테이 건립(25억)” 사업을 2019. 7월 완료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어 지역관광활성화 도모뿐만 아니라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8.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두구동 연꽃소류지 꽃두레길 조성 사업’은 2019. 2월 준공이 되면 주민편익을 증대시키는 여가공간 제공, 연꽃 개화기 사진촬영 장소 제공 및 도심속 친환경 생태현장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3. 관광자원화 운영

2017년에 이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8. 걷기 축제에 공모·선정, 국비 2천만원 확보하여 ‘18845 금정산성 걷기여행 축제’를 11월 3일 개최하여 금정산성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2018.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 공모를 통하여 ‘인문학과 함께하는 땅피산 소풍 여행’ 사업이 공모·선정되어 기존 해양레저 중심의 부산 관광의 패러다임을 깨며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꾀하였고, 금정구 관광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근 음식점 쿠폰 발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금정구 생태해설사 육성 및 지원, 지역예술가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공정관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적극 노력하였다.



금정산 걷기여행 축제 1



금정산 걷기여행 축제 2



금정산 걷기여행 축제 3



금정산 걷기여행 축제 4



땅미산 생태 가을 운동회 1



땅미산 생태 가을 운동회 2



땅미산 생태 가을 운동회 3



땅미산 생태 가을 운동회 4



인문학과 함께하는 땅미산 소풍여행



땅미산 별빛 캠핑 여행

#### 4.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마케팅 추진

2018. 4월 ~ 5월 관광수용태세 개선 수요 조사 및 관광현장점검단 운영으로 총 10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제공 및 고객만족을 추구하였다. 그 중 만남의 광장과 회동수원지일원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요 핵심 관광지에 필요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였다.

금정구 테마여행지도, 금정구 탐방지도를 포함한 홍보물 제작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실시로 체계적인 금정구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여건개선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금정구의 관광특징을 표현한 관광 기념품, 쇼핑백 제작으로 우리 구만의 관광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주요 관광지를 아름다운 영상미로 담아낸 관광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SNS 홍보 하는 등 관광 마케팅 추진 및 관광홍보 적극임하였다.



2018년 부산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1



2018년 부산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2



2018년 부산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3



2018년 부산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4



금정구 탐방투어 리플렛



금정길 관광안내지도



테마형 관광안내지도

## 제3절 문화재 행정

###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재 총 124점(국가지정문화재 19점, 시지정문화재 105점)이 있으며, 보관 장소로는 범어사 정보박물관 및 범어사 경내, 부산대학교, 기타 등으로 대부분의 문화재인 불교관련 서적 및 불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

### 2. 문화재 보호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사적 제215호로 우리나라 성곽 중 가장 규모가 큰 송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 『금정산성』(길이 18,845m)과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등나무군락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복원사업은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 『노포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가. 관리 실태

금정산성은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사업 중에 있으며, 관리 기관은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 용역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 나. 보호 관리 대책

##### ○ 화재예방

중요목조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6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3. 문화재 보수

####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을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성곽보수가 체성 형태로만 보수 승인되었으나, 2009년 보수공사 시행 시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 자료 고증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여장 설치로 제 모습을 갖춘 웅장함과 볼거리 제공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2015년 17억, 2016년 10억을 투입하여 서문 해체보수 및 성곽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원하였다.

또한 금정산성 성곽에 대한 보존도를 높이고 탐방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7년 9억9천, 2018년 10억을 투입하여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다.



역사문화탐방로

## 나. 범어사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사찰로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하고자 노후되거나 조잡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사채 증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0년 대웅전 벽화모사 보수 보존처리와 강원건물 및 성보박물관 보수정비 하였고, 2011년 보제루 해체 복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효암 대웅전 및 요사채 해체보수, 2013년에는 일로향각, 청풍당, 비로전, 미륵전 해체보수 등 대웅전과 조계문 주변 정비, 2014년에는 범어사 대웅전 휴휴정사 해체보수 및 석축 정비, 2015년에는 범어사 관음전, 서향각, 산령각 보수, 팔상독성나한전 석축 보수, 2016년에는 범어사 심검당 해체보수, 해행당 옆 계단정비, 2017년에는 심검당 단청, 강원 부속채 및 도림당, 명학당 개축, 2018년에는 범어사 서지전 지붕보수, 관음전 부분 단청,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1(전)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1(후)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2(전)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2(후)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3(전)



진여문 주변담장 정비 3(후)

#### 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1999년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으며 2010년에 3억원으로 내부 전시실 인테리어 및 수장고 보수를 마무리하였다. 연면적 505.44㎡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고, ‘금어연’ 제작, 관조스님 유작필름과 백운스님 소장전적을 기증받아 정비하는 등 관광객에게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범어사 성보관 신축부지 건립 착공식

####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전수학교로 부산예술고등학교 20명, 동래학춤(시지정무형문화재 제12호) 전수학교로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45명, 2013년에 새로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전수학교로 지정된 서명초등학교 50명에 대하여 전승보조금(17,250천원)을 지원하여 각종 예술행사 개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제24호 전각장 문화재 보유자(1명) 및 전수장학생(6명)에게 전승보조금(32,250천원)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5.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락은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 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 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비 60백만원으로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치료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관리

## 6. 매장문화재 노포동고분군 관리

노포동고분군은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분묘 유적으로 목곽묘를 주축으로 하는 묘제와 함께 다량의 와질토기와 철제무기류, 장신구로 미루어 노포동고분군은 당시 부산 지역 뿐 아니라 영남 일대 삼한 후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유적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996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다.

1980년대 부산박물관과 부산대박물관의 합동조사 이후, 당시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142-1번지 전체와 142-2번지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하였다. 보호구역 일대에는 다수의 수목과 수목 이식으로 인한 훼손 상태가 극심하여, 금정구에서는 유적 관리 계획 마련을 위하여 2017년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구역 경계 일대를 대상으로 총 4개의 조사구역을 설정하여 진행하였고, 총 27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A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B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한시대 목관묘 1기와 목곽묘 5기, C구역에서 시기 불명의 수혈 3기, D구역에서 분묘로 추정되는 수혈 16기를 조사하였다.

2018년 제2차조사에서는 유구가 밀집된 것으로 조사된 D구역을 대상으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를 비롯하여 구상유구 4기, 수혈 5기 등이 조사되었다.

## 부산광역시 소재 지정(등록)문화재 목록

(2018년 12월 현재)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소계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	등록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124	19	13	1	1	1	1	2	105	62	1	3	3	36

### 1. 국가지정문화재

#### □ 보물(寶物) 13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石塔)	제250호	63.01.21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삼국유사 권4~5 (三國遺事 卷四~五)	제419-3호	02.10.19	조선초기	
부산 범어사 대웅전 (釜山 梵魚寺 大雄殿)	제434호	66.02.28	조선시대	
주범망경 (注梵網經)	제894-2호	07.09.18	고려말기	
불조삼경 (佛祖三經)	제1224-2호	07.09.18	고려말기	
부산 범어사 조계문 (釜山 梵魚寺 曹溪門)	제1461호	06.02.07	17세기	
금장요집경 권1~2 (金藏要集經 卷一~二)	제1525호	07.09.18	고려말~ 조선전기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제1526호	07.09.18	1661년	
목장지도 (牧場地圖)	제1595-2호	08.12.22	1678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靑銅金鼓)	제1733호	11.12.23	1666년	금정구 북문로 42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조선왕조의궤 朝鮮王朝儀軌	제1901-6호	16.05.03	조선후기	오륜대로 106-1(부곡동) 한국순교자박물관
묘법연화경 권7 妙法蓮華經 卷七	제692-1호	81.03.18	고려후기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자치통감 권57~60	제1281-5호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아파트 101-2004

□ 사적(史蹟) 1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소재지
부산 금정산성 (釜山 金井山城)	제215호	71.02.09	조선후기	금정구 금성동 일원

□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1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소재지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釜山 梵魚寺 등나무群落)	제176호	66.01.13	약 120년	금정구 청룡동 산2-1 일원

□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1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일	분야	소재지
자수장 (刺繡匠)	제80호	96.12.10	자수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50

□ 중요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1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소재지
의왕 원유관 (義王 遠遊冠)	제274호	13.06.14	1900년	금정구 오륜대로 106-1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 2

문화재명	등록번호	등록일	시대	소재지
부산대학교 구 본관 (釜山大學校 舊 本館)	제641호	14.10.30	1959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釜山大學校 무지개門 및 舊 守衛室)	제642호	14.10.30	1957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

## 2.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62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오층석탑 (五層石塔)	제9호	72.06.26	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제11호	72.06.26	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효암 범어사
원효암 서편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제12호	72.06.26	신라말 ~고려초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幢竿支柱)	제15호	72.06.26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제16호	72.06.26	통일신라	
범어사 청룡암시 목판 (梵魚寺 靑龍巖詩 木板)	제25호	99.09.03	조선시대	
범어사 천수 책판 (梵魚寺 千手 冊版)	제26호	99.09.03	1676년	
범어사 어산집 책판 (梵魚寺 魚山集 冊版)	제27호	99.09.03	1700년	
범어사기, 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고적판 (梵魚寺紀, 梵魚寺創建事蹟, 梵魚寺古蹟板)	제28호	99.09.03	조선시대	
범어사 선문촬요 책판 (梵魚寺 禪門撮要 冊版)	제29호	99.09.03	1908년	
범어사 권왕문 책판 (梵魚寺 勸往文 冊版, 언문판)	제30호	99.09.03	1908년	
범어사 태전화상주심경 (梵魚寺 太顛和尚注心經)	제32호	99.11.19	1411년	
범어사 함허어록 (梵魚寺 函虛語錄)	제33호	99.11.19	1440년	
범어사 지공직지 (梵魚寺 指空直指)	제34호	99.11.19	1475년	
범어사 선종영가집 (梵魚寺 禪宗永嘉集)	제35호	99.11.19	1542년	
범어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梵魚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36호	99.11.19	1562년	
범어사 육조대사법보단경 (梵魚寺 六祖大師法寶壇經)	제37호	99.11.19	1569년	
범어사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梵魚寺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제38호	99.11.19	1570년	
범어사 불조역대통재 (梵魚寺 佛祖歷代通載)	제39호	99.11.19	1576년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 몽산화상법어약록 (梵魚寺 蒙山和尚法語略錄)	제40호	99.11.19	157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묘법연화경 (梵魚寺 妙法蓮華經)	제41호	99.11.19	조선시대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제51호	03.09.16	1869년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제52호	03.09.16	1817년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제53호	03.09.16	1882년	
범어사 의상대사 영정 (梵魚寺 義湘大師 影幀)	제55호	03.09.16	1767년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梵魚寺 捌相獨聖羅漢殿)	제63호	06.07.03	1906년 중건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제67호	06.11.25	1882년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제68호	06.11.25	1882년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제69호	06.11.25	1882년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제70호	06.11.25	1722년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	제71호	06.11.25	17세기 ~18세기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제72호	06.11.25	17세기 ~18세기	
범어사 석조연화대좌 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 下臺石)	제73호	06.11.25	통일신라말 ~고려초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제76호	07.09.07	16세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정중학교
범어사 금강반야바라밀경 (梵魚寺 金剛般若波羅密經)	제80호	07.09.07	141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보리달마사행론 (梵魚寺 菩提達摩四行論)	제81호	07.09.07	14세기	
범어사 선문염송집 (梵魚寺 禪門拈頌集)	제82호	07.09.07	14세기	
범어사 동종 (梵魚寺 銅鐘)	제90호	08.09.11	172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효암 범어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제96호	08.12.16	18세기	
금천선원 묘법연화경 (金泉禪院 妙法蓮華經)	제130호	13.10.23	1477년	금정구 금샘로 271 금천선원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분청사기 마흥목처 신반진씨 지석 (粉靑沙器 馬興牧妻 新反陳氏 誌石)	제136호	14.01.22	1467년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사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獅子庵 石造菩薩坐像)	제139호	14.03.19	1904년	금정구 상마1길 26 사자암 범어사
금동십일면관음보살좌상 (金銅十一面觀音菩薩坐像)	제154호	15.3.18	고려시대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비로전 (梵魚寺 毘盧殿)	제155호	15.7.15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미륵전 (梵魚寺 彌勒殿)	제156호	15.7.15		
훈몽자회 책판 (訓蒙字會 冊板)	제166호	15.9.16	조선후기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梵魚寺 極樂庵 七星圖)	제167호	16.1.20	186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승자총통 (勝字銃筒)	제168호	16.3.16	1583년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일괄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物 一括)	제173호	16.9.21	조선후기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범어사 원효암) 범어사
삼층석탑 (三層石塔)	제175호	16.9.21	통일신라	부산 금정구 상현로 79번길 59-15(선동)
범어사 목조팔각불감 (梵魚寺 木造八角佛龕)	제176호	16.11.23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설미담진안씨분재기 (立山耽津安氏分財記)	제177호	16.11.23	1650년	부산대학교 도서관
범어사 삼불연 (梵魚寺 三佛輦)	제178호	17.1.23	1743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원효대사 진영 (梵魚寺 元曉大師 眞影)	제184호	18.1.30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사명대사 진영 (梵魚寺 泗溟大師 眞影)	제185호	18.1.30	조선후기	
범어사 고승 진영 (梵魚寺 高僧 眞影)	제186호	18.1.30	조선후기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제188호	18.1.30	조선후기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
의령 금란계안 (宜寧 金蘭契案)	제191호	18.3.27	조선후기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1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분 야	소 재 지
전각장 (篆刻匠)	제24호	15.03.25	전통전각제작	금정구 금샘로 591

□ 기념물(記念物) 3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금정산성 부설비 (金井山城 復設碑)	제15호	72.06.26	1808년	금정구 금강로 217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제42호	96.05.25	삼국시대	금정구 노포동 142-1 일원
금정산 금샘 (金井山 金井)	제62호	13.09.25		금정구 청룡동 산2-1

□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3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梵魚寺 皇室祝願 莊嚴繡)	제1호	99.09.03	한 말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조 (梵魚寺 木槽)	제17호	17.2.22	1757년	
범어사 오방번 (梵魚寺 五方幡)	제18호	17.2.22	-	

□ 문화재자료 36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 청동은입사 향완 (梵魚寺 靑銅銀入絲 香盃)	제3호	99.09.03	165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유제 대발 (梵魚寺 鍮製 大鉢)	제4호	99.09.03	1825년	
범어사 대웅전 청동북 (梵魚寺 大雄殿 靑銅金鼓)	제5호	99.09.03	1862년	
범어사 선방 축성패 (梵魚寺 禪房 祝聖牌)	제6호	99.09.03	한 말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0호	03.09.16	1860년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靑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1호	03.09.16	1860년	
범어사 석가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제12호	03.09.16	1887년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제13호	03.09.16	18세기 ~ 19세기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제14호	03.09.16	189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尊牌)	제21호	03.09.16	조선후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제22호	03.09.16	조선후기	
범어사 목조옴마니반메홍소통 (梵魚寺 木造옴마니반메홍疏筒)	제23호	03.09.16	조선후기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제24호	03.09.16	조선후기	
범어사 연 (梵魚寺 輦)	제25호	03.09.16	조선후기	
범어사 바라 (梵魚寺 饒鉞)	제26호	03.09.16	조선후기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제36호	06.07.03	조선후기	금정구 금성동 280 일원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城僧將印)	제44호	08.09.11	조선후기	금정구 북문로 42 국청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범어사 자수 수복문 병풍 (梵魚寺 刺繡 壽福文 屏風)	제45호	08.09.11	조선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內院庵 石造菩薩坐像)	제48호	08.12.16	조선후기 (19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48 내원암 범어사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像)	제52호	10.05.24	1892년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정중학교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제57호	11.03.26	고려초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제71호	13.10.23	17세기 ~18세기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도서관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梵魚寺 獅子庵 七星圖)	제77호	14.03.19	19세기 말 ~20세기 초	금정구 상머1길 26 사자암 범어사
거제선생안 (巨濟先生案)	제81호	14.11.26	1751년 ~1904년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도서관
한중일관계사료초 (韓中日關係史料抄)	제82호	15.3.18	1926년 ~1927년	
석조석가여래좌상 (石造釋迦如來坐像)	제86호	15.5.20.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1 부산대학교박물관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지정일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 청동은입사 향완 (梵魚寺 靑銅銀入絲 香盃)	제3호	99.09.03	165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유제 대발 (梵魚寺 鑄製 大鉢)	제4호	99.09.03	1825년	
범어사 대웅전 청동북 (梵魚寺 大雄殿 靑銅金鼓)	제5호	99.09.03	1862년	
범어사 선방 축성패 (梵魚寺 禪房 祝聖牌)	제6호	99.09.03	한 말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0호	03.09.16	1860년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1호	03.09.16	1860년	
범어사 석가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제12호	03.09.16	1887년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제13호	03.09.16	18세기 ~ 19세기	
범어사 왕비전하수제연패 (梵魚寺 王妃殿下壽齊年牌)	제94호	16.11.23	1781년	
범어사 세자저하수천추패 (梵魚寺 世子邸下壽千秋牌)	제95호	16.11.23	1748년	
범어사 유제로(梵魚寺 鑄製爐)	제96호	16.11.23	조선말기	
범어사 청수관(梵魚寺 淸水罐)	제97호	16.11.23	근대	
범어사 영탱 (梵魚寺 影幀)	제100호	18.1.30	조선 후기	
범어사 현감당 묘전대사 진영 (梵魚寺 玄鑑堂 妙全大師 眞影)	제101호	18.1.30	조선 후기	
범어사 석조 (梵魚寺 石槽)	제102호	18.5.23	조선 후기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羅漢殿 釋迦牟尼佛會圖)	제104호	18.10.3.	1905년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 (梵魚寺 羅漢殿 十六羅漢圖)	제105호	18.10.3.	1905년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八相殿 釋迦牟尼佛會圖)	제106호	18.10.3.	1905년	

## 제4절 공보행정

### 1. 공보행정의 기본방향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해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공보행정은 주민주권 실현의 기반으로써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구는 온라인 매체, SNS 등 메시지 전달 채널 다변화와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정 홍보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구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기능을 적극 활용해 정보 제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채널로써의 역할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보행정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SNS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파급력이 강한 대표적인 뉴미디어로 주민이 공감하고 재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보 행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발간되는 구정 소식지 '금정소식'과 유튜브, 민간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정 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제고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 2. 주요 추진실적

#### 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인터넷)를 통한 홍보

언론매체는 전통적인 소통 채널로 폭넓은 수용자 층을 형성하고 있고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매체로 구정 홍보의 주요 수단이다. 우리 구는 주요 7개 출입언론을 비롯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뉴스, 통신사 등 총 81개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KBS, MBC, KNN 등 지상파 방송과 CJ헬로 등 지역케이블 방송 등 방송매체는 주민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매체로 정보를 집단적으로 일시에 전달할 수 있지만 방송시간과 전달하는 정보량 등의 한계가 있어 활용이 어려운 매체이다. 방송에서의 구정 보도는 뉴스기사와 문화·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문은 구독 등 능동적 수용행위를 필요로 하는 매체로 수용자가 정보 획득에 적극적

태도를 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글과 사진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세하고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 사회면과 포토면 등을 통해 구정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방송이나 지면처럼 그 분량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활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매체수단으로 구정홍보 사항을 거의 여과 없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구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도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배포하고, 언론사와의 협력관계 형성과 수시 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2018년 언론보도 현황

- 언론보도 : 3,256회(홍보성 2,894회, 시정성 26회, 기타 현안사항 등 336회)
- 자료제공 : 주요역점사업, 각종 행사 및 우수시책 등

나. 월간 「금정소식」 발간



www.geumjeong.go.kr 주민의 목소리 들려주는 곳



Geumjeong NewsLetter  
2018년 9월

포스트가우시촌 예방하려면  
원진드기 침투 방지가 최선!

진드기 예방  
장물 사용  
기피제 사용



하늘빛을 담아  
더 푸른 회동수원지

이름산 일대에서 비옥한 회동수원지의 맑아져 온물 무늬다. 금정구는 지난 1998년 기동·관악정형 구역에서 이름산 일대를 이루는 일주봉의 일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일개지 총 5.72km에 이르는 일도를 일었다. 내년까지 1.3km가 연장되면 기동원과 연결된다. 회동수원지 물부담은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청에 물 권역으로 대상, 2018년 국유지(산) 관리권으로 부산이 물권 일개지 일개지 구간 50%에 해당한다.

## 범어사 하행로 10월 중 양방통행

(범어사 대문-삼대마을-금정로 삼거리)

### 범어사 진입 단축·보행자 안전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10월 중 범어사 하행로가 양방향으로 바뀐다.

금정구는 오랜 기간 범어사 하행로와 양방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주민과 범어사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양방향으로 차량을 시작, 10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마쳤다.

범어사 하행로 구간은 범어사 대문-삼대마을-금정로 삼거리까지 총 1.89km 구간으로,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됐다. 일방통행 때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폭은 기존 10m에서 16m로 넓어졌다.

금정구는 원활한 양방향통행 위해 범어사 주차장 일부를 정비해 회동로까지로

를 설치했다. 또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위해 기존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난간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하행로 양방향통행 시행으로 삼대마을 거주민들은 마을 진입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방문객은 목적지를 지체 없이 들어가는 불편을 없게 됐다. 또 12월 개관 예정인 범어사 신본유교박물관, 범종스케이프 함께 신본유교 등 내외국인의 태극연장이 활기를 띠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어사 하행로 구간은 기존 일방통행이 유지된다.

건설과 519-4694

**‘일상의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28-30일 부산대학로 '2018 부산거리예술축제'

부산대학로에서 오랜만에 문화의 중심을 만날 수 있다.

금정구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금정구 대표 문화의 거리인 부산대학로(도시철도 부산대역 일원)에서 '2018 부산거리예술축제'를 연다.

부산거리예술축제는 아브서커스 등 거리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과 호흡하는 참여형 행사로 사랑을 받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18 부산거리예술축제'는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초청 아티스트 4팀, 국내 초청 아티스트 12팀의 무대로 펼쳐진 예정이다.

(금정기사 2면)  
금정문화재단 518-0053

우리 구는 매일 구정 주요소식이나 생활정보, 지역미담 사례 등의 유익한 정보를 담은 《금정소식》을 제작 발행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정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1988년 1월 우리 구 개청부터 발간해 온 《금정소식》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를 보다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타블로이드 16면으로 증간하였으며 현재 매일 45,500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e-book 금정소식》을 발행해 홈페이지에서 상시 구독 가능하며 인터넷 정기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인 메일로 송부해 주는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시각적 홍보물에 의한 정보 전달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도 구정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매일 점자 《금정소식》을 발행·배부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금정소식지 발행 : 12회 546,000부(매월 45,500부)
- 2007년 2월부터 40,000부 발행, 2012년 3월부터 45,500부 발행
- 배부처 : 구청,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도시철도역, 아파트, 대형마트, 지역대학 등
- 인터넷 신문(e-book 금정소식) 발행 : 12회(구 홈페이지 게재)
- 메일링서비스 신청 구독자 수 : 900여 명
- 점자 《금정소식》 발행·배부 : 매일 55부(우편 및 배부처 발송)

#### 다. SNS를 활용한 실시간 구정홍보

매체 환경의 변화로 미디어의 경계가 열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매체는 구정 홍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해 2011년 3월 블로그, 트위터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에는 페이스북을, 2017년 3월에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구정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4월 블로그 시민기자 위촉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SNS 서포터즈 1기가 출범했으며 지속적으로 SNS 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한 각종 콘텐츠와 더불어 내·외국인 25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가 취재한 생동감 넘치는 사진, 글 등의 다채로운 소식을 정보 파급력이 강한 SNS에 게시함으로써 금정구의 다양한 소식과 매력을 다각도로 전달하여 구정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금정구 트위터 운영 (<https://twitter.com/geumjeonggu>)
  - 팔로워 수 : 6,142명(누적)
- 금정구 블로그 운영 (<http://blog.naver.com/geumjeonggu>)
  - 방문자 수 : 1,225,070회(누적)
- 금정구 페이스북 운영 (<http://facebook.com/geumjeonggu>)
  - 좋아요 수 : 4,785건(누적)
- 금정구 인스타그램 운영 (<http://instagram.com/smile-geumjeong>)
  - 팔로워 수 : 577명(누적)



2018 SNS서포터즈 7기 발대식



금정구 네이버 블로그



금정구 페이스북



금정구 인스타그램

# 2018 언론으로 본 금정구

## 【'인문학과 함께하는 땅뫸산 소풍 여행' 문체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선정】

### 부산일보

#### 부산 회동수원지, 생태관광지로 거듭난다

##### 문화부 '생태관광사업' 선정

부산 금정구의 '인문학과 함께하는 땅뫸산 소풍 여행'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금정구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역 민 회합가의 실정을 염두에 회동수원지가 있는 선동 상변태암에서 시작해 오분동 땅뫸산까지 걷는, 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오는 4~5월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국비 1억 원에 지방비 1억 원을 더해 지역대학, 요신문화관 등과 연계해 인문학을 생태관광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는 땅뫸산 여행 외에도 △용산 '도심 생태순경 테라장 십리대숲' △경남 창원 '태곳적 땅길은 만배산 속 4계절 옥(玉) 맑은 여행' △강화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 여행' 등 8건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중 강해시의 프로그램은 2012년에 개관한 강해천문대를 활용한 지역관광진흥 재생사업으로 추진된다.

'비비단'은 강해 지역에 있었던 가락국의 왕자가 별을 관측하기 위해 진례토성 위의 상봉에 쌓은 칠성대의 명칭이라고 전해진다. 가야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안도 아유타국 출신 공주)이 태를 타고 가락국으로 올 때 별을 보고

중해의 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가서는 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별빛 회합 관측행사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가야테라파크, 가야유적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관광 매력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 경남 하동군의 '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의 경우 지리산생태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25%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민 해설사 17명을 새로 양성하고, 영유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된 부산 금정구의 '땅뫸산 소풍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유아교육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근 관광지 최왕만덕교의 통합관찰형 등을 통해 지역 관광의 다양성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호평도 나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도 생태관광의 인지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생태와 관광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1.12. 부산일보, CJ헬로, 부울경뉴스, 한국공보뉴스 /
- 1.13. MBC /
- 1.15. 리더스경제, 뉴스앤뉴스

# 【선두구동 신천마을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

## 부산일보

### 옥상에 내리찍는 햇볕, 전기요금 '증발'시켰네

2018 클린에너지 부산

부산 '에너지마을' 가 보니

"에너지001은 내오면 전기요금이 0원 이 되잖아? 진짜요." 부산시 금정구 선두 구동 신천마을 박성홍 8층 동장은 자랑 스럽게 말을 건넌다. 신천마을은 지난 해 부산시 최초의 에너지마을로 선정돼 마을 전체 70가구가 30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마을의 절반 가 구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 이다. 그중 20가 가용에서 가장 높은 2 초 주택 옥상에 설치했다. 눈앞에 펼쳐 진 20여 가구 지붕에는 각기 다른 크기 의 태양광 패널이 가득 차 있었다.

●태양광 가구 절반 전기요금 0원

태양광 설치 후 주민들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목격해 삼삼오오 있다. 태 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37가구 중 18 가구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0원 내 지 않았다. 한 달에 10만 원 이하의 전기 요금을 냈던 가구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고, 1만 원 이하 사용 가구도 500 -1만 원 사이의 전기요금만 납부했다. 이 마을 주민 김 모(59) 씨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도 자비로 설치했다. 보일러도 태양광으로 바꾸고 전기도 태양 광에너지 받아 매우 전기를 안 쓴다고 말했다. 박 동장은 "신천마을의 경우 물 도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거 때문에 수도요금도 거의 나오 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신천마을은 분

과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쓰 는 셈이다. 박 동장이 체하는 노인회관 과 기도당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환경형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는 것이다. 신천마을은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친환경에너지마을로 선정돼 환경형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 혜택을 타 나 실 받았었다.

●분적 댁으로 투자 나오니

신천마을의 에너지 마을은 2013년 단독주택 13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주민들 사 이에 '전기요금이 안 나온다'는 일소문 이 나자 2014년 부산시 태양광발전시 설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해 20가구가 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당시 신천 마을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 억 7000여만 원. 한 가구가 수백만 원 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심사는 엄격 했다.

후산 밥장 소유에 주택은 제외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한 것은 5 년 동안 집중 해주는 것은 물론, 발전시 설이 설치된 지붕을 거주수에 시설을 송출시킬 수 없다는 점도 골렘했다. 설 치가 힘들 정도는 노후한 것도 지원 대 상에서 배제했다. 김 모씨가 아닌 2017년 가 신청한 경우에도 추후 김 모씨와 분 령이 없거나 수 있어 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없었다.

부산시 클린에너지사업단 관계자는 "25가구가 50만 원씩 전기용 절감해 도 10년 정도면 투자비용을 할 수 있다"면서 "자급 보수 외에 마을이 전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차용 부산 금정구 신천마을 전경. 집중력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37가구 태양광 시설 설치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0원' 한 달에 약 5만 원 절약 효과 올해 부산 시내 4곳 더 추가

화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자는 데 더 큰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로 번지는 설치 대열  
신천마을처럼 부산에서 친환경 에너 지를 직접 만들어 소비하는 친환경에너지 마을은 올해만 4곳이 추가됐다. 부산 시는 마을 단위 단독(공동)주택 25가 구에 태양광발전시설 2100대를 설치해 주민이 직접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을 4곳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부산시

금정구 신천마을 뿐만 아니라 부산 현 재구 계획을 11월 지역 30가구의 수 영구 완료된 현상면제(에너지)마을 20 가구, 40가구 신청을 신청했다(에너지 4 0)가구 4곳 뿐이다.

마을이 아닌 개인이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마을계 할의 부산시는 마을에 500~1000만 원 을 지원한다. 단독주택 거주자에 경우 그간을 홈페이지(www.busanenergy.com) 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 심평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300~700만 원

만 앞에서 200만 원(200평)을 대면 할지 가능하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전기용 설치할 수도 있다. 200W 기준 자기(세대)당 1 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전기용 쓰는 가구는 해당 5000원에서 1만1000원을 할 감할 수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 고를 통해 신청한 태양광 설치 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에너지사업단 관계자

- ▶ 1.15. 국제신문, 문화일보 /
- 1.16. 부산일보 /
- 1.17. KNN

【금정구 후원회, 필리핀 오지마을에 놀이터 선물】

## 국제신문

### 필리핀 오지 초등학교 놀이터 선물

금정구 후원회, 그네 등 기증

부산 금정구 주민들이 필리핀 오지마을 아이들에게 놀이터(사진)를 선물했다.

금정구 후원회는 국제 NGO인 새터나 은세상과 함께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70km 떨어진 오지마을에 있는 라왕초등학교(리잘 주타나이 시 탄당 큐토 마을)에 2인용 그네, 스프링 라이더, 미끄럼틀을 갖춘 어린이 놀이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운동장 바닥도 평평하게 골랐다. 원정희 금정구청장도 지난 25일 후원회와 함께 출국해 놀이터 마무리 공사를 돕고 29일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금정구 후원회는 2015년 3월 주민 24명이 모여 창립한 민간단체로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문 이상규 대표가 이끌고 있다. 개별회원이 낸 100만~500만 원을



모아 해외봉사활동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라오스에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했다. 금정구는 필리핀 정부와 금정구 후원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대표는 “지난해 시작한 해외지원 사업이 계속 유지돼 뿌듯하다. 기부와 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106번째 회원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1.29. 국제신문, CJ헬로, 뉴스앤뉴스, 국민안전방송 /
- 1.31. 리더스경제

## 【금정구, ‘버스정류장 추위 대피소’ 설치】

### 부산일보

#### 부산에 첫 ‘버스정류장 추위 대피소’ 등장

##### 금정구, 장전역 인근에 설치

속보=서울과 경남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한파 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본보 지난달 26일 자 9면 보도)에 따라 부산 금정구가 부산에선 처음으로 ‘버스정류장 추위 대피소(사진)’ 설치에 나섰다.

8일 오전 8시,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장전역 인근 버스정류장 옆에 ‘추위 대피소’가 설치됐다.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가림막으로 만들어진 추위 대피소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 투명 재질로 만들어졌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

는 용도이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대피소 안에 모이자 온기로 공기가 데워져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다. 직장인 홍성연(34·여) 씨는 “요 며칠 추위 때문에 버스 기다리다 지쳐 택시를 타곤 했는데 이런 곳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시철도 장전역과 금정구청 버스정류장에 추위 대피소를 시범 설치한 금정구청은 재난관리기금 432만 원을 투입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기복적인 추위가 이어지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재난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커 내



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한파 행정’은 부산보다 경남이 앞서 있다. 경남 김해시는 일부 버스정류장에 발열 의자를 설치했고, 창원시는 발열 의자와 더불어 버스 정류장 수납 곳에 바람막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조소희 기자 sso@

▶ 2.9. 부산일보, 부울경뉴스, 프레시안, 매일경제, 연합뉴스

【금정구, 일자리정책 행안부 장관상 수상】

## 국제신문

### 부산 금정구 일자리정책 행안부 장관상

#### ‘금정! on-통 창-Up’ 사업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서 ‘일자리 창출도시 금정! on(온)-통 창-Up(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사진)했다. 금정구는 이번 박람회에서 ▷서동지역의 청년 창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창업 문화촌 ▷문화예술 관련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부산시니어기술허업센터로 기능할 금정구 창업일자리 센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공단 MOU 체결 ▷지역 브랜드 양성을 위한 브랜드 CI 개발, 브랜드 슱 조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꾸준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승희기자

▶ 3.12. 국제신문, 국민안전방송, 뉴스앤뉴스, 플러스코리아

## 국제신문

### 금정구, 여성·아동에 ‘마이 비상벨’ 배부

#### 폰 뒷면에 대면 112 자동 신고

스마트폰 뒷면을 ‘쓱’ 갖다 대기만 하면 112에 자동 신고되는 ‘마이(MY) 비상벨’이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여성·아동에게 보급된다.

금정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마이 비상벨’을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이 비상벨은 위험한 상황 발생 시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재빨리 신고를 돕는 시스템이다. 구는 우선 100만 원을 투입해 스티커형 1000개와 열쇠고리형 100개를 제작했다.

마이 비상벨의 핵심기술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이다. NFC란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이다.

마이 비상벨을 이용하려면 일단 ‘NFC 긴급메시지’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앱에서 비상연락처 2개를 사전 설정할 수 있다. 1번은 112로 고정 저장돼 있으며 2번은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한다.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 뒷면을 마이 비상벨에 태그하면 앱으로 자동 접속돼 사전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신고된다. 이때 스마트폰은 GPS가 켜져 있어야 보호자 연락처로 자신이 있는 구글맵 위치가 전송된다.

마이비상벨은 홀로 사는 여성과 아동에게 우선 보급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에 노출됐을 때 가해자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편의점 등 현금이 많이 통용되는 업소에도 배부돼 경찰 핫라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해정기자 call@kookje.co.kr

- ▶ 5.25. 국제뉴스 /
- 5.26. 부울경뉴스, IBS중앙방송, 국민안전방송 /
- 5.27. CBS, 뉴시스 /
- 5.28. 리더스경제, 뉴스앤뉴스 /
- 5.29. 국제신문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개최】

### 부산일보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4대문 걸으며 숲길 만끽

국가지정 문화재인 금정산성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2018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22일부터 사흘간 금정산성 다목적광장과 부산대, 스포원 등 금정구 일대에서 열린다.

메인 행사인 '18845 금정산성 4대문 걸기'는 동문과 남문, 북문과 서문을 경유하는 4개 코스가 운영된다.

다목적광장 행사장에 들어서면 시원한 스프링클러 '산성물존'이 방문객을 맞는다. 광장 입구에 세워진 '서문' 앞에서 호패를 만들어 차고 입장하면 맨손 금어잡기, 산성마을 막걸리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22일 개막행사에는 '아모르 파티'의 가수 김연자와 정해진이 축하무대를, 23일 열리는 금정명품콘서트 '오픈 씨어터'에서는 가왕 가수 더 원과 부산네오팔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51-518-0053(금정문화재단). 이대진 기자 djrhee@

- ▶ 6.17. 국제뉴스, 뉴시스, 부울경뉴스, IBS중앙방송 /
- 6.18. 서울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스앤뉴스, 매일경제, 뉴스1, KBS /
- 6.21. 리더스경제 /
- 6.22. 부산일보, CJ헬로, 국제신문

## 【구서역 일대 ‘쿨 페이브먼트’ 사업 추진】

### 부산일보

#### ‘밝은색 도로’ 도심 온도 낮출까?

금정구, 1호선 구서역 일대 ‘쿨 페이브먼트’ 사업 추진  
햇빛 반사율 높은 도로 사용  
지열 10도 감소 효과 기대



‘밝은색 도로’가 폭염 속 도시 열섬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금정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햇빛을 반사해 열 축적을 방지하는 회색 페인트인 일명 ‘쿨 페이브먼트(Cool Pavement)’로 도로포장을 바꾸는 작업을 벌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금정구는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일대에 ‘쿨 페이브먼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모두 3억 원(국비 1억5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차열성 도로를 칠하고 불룩을 깔 계획이다. 공사 구간은 구서역 1번 출구-구서동 부산은행 사거리(382m)이다. 구는 애초 도시철도 부산대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겹치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 구서동으로 사업지를 변경해 향후 2-3년간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쿨 페이브먼트는 도로 표면에 열 축적을 방지하는 특수 도로 등으로 도로를 덧칠하는 포장 방법이다. 지표면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정도(알베도)를 증가시키거나, 태양열 반사율과 열 방출률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리다. 80~95%의 햇빛을 흡수해 도시 열섬 현상을 가속화하는 기존 검은색 아스팔트를 더 밝은색으로 코팅하면 햇빛을 반사해 10도가량 지열을 낮추고 대기 온도를 하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쿨 페이브먼트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0년 열섬완화 차열성 포장공법을 도입해 일부 구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소영 기자

- ▶ 7.18. 부산일보 /
- 7.19. CJ헬로 /
- 8.3. 매일경제, 연합뉴스

## 【선두구동 연꽃 소류지 ‘연꽃 달빛 음악회’ 개최】

### 국제신문

## 금정구 선두구동서 내일 ‘연꽃 달빛 음악회’

밤하늘 아래 풀벌레소리와 연꽃, 연등이 어우러진 ‘연꽃 달빛 음악회’가 올해도 열린다.

제3회 연꽃 달빛 음악회가 27일 오후 6시30분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연꽃 소류지에서 펼쳐진다. 선두구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최하고 선두구동 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연꽃 사진전, 연등·유등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풍물놀이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무대에는 선두구동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수강한 주민들이 공연도 선보이는 것이다. 행사 교통통제, 안전 조치도 주민들이 나섰다.

연꽃 달빛 음악회가 열리는 연꽃 소류



지난해 열린 연꽃 달빛 음악회의 모습.

금정구제공

지의 풍경도 장관이다. 연꽃 소류지 인근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도 음악회를 위해 주민들이 맘 흘리며 손수가꿘다. 선두구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무더위에 밤잠 설치는 여름 밤 자연 속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연꽃 달빛 음악회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해정기자

- ▶ 7.11. IBS중앙방송 /
- 7.13. 부울경뉴스 /
- 7.26. 국제신문

## 【금정문화재단 ‘오시계! 부곡동 하와이’ 행사 개최】

부산일보

2018년 08월 05일  
02면 (종합)

# ‘얼음물 드세요’ 지자체 폭염 대책 ‘구슬땀’

동래구청 얼음물 쟁겨 거리로  
기장군 주민센터 24시간 개방

밤낮을 잊은 가마솥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유난스러운 무더위에 지자체들도 이세 폭염 대책을 내놓으며 더위를 식히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 부곡동 금양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대형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가 설치돼 가족들을 위한 깜짝 피서지로 변신했다. (재)금정문화재단은 4-5일 이틀간 ‘오시계! 부곡동하와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했다. 구청 관계자는 “폭염 덕분인지, 올해 처음 열린 행사였는데도 가족 단위 주민들의 호응이 컸다. 내년에는 행사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청장과 공무원이 얼음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지역도 있다. 동래구는 지난 2일부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앞과 역사 내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쟁겨 얼린 생수 300개씩을 무료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부산 금정구는 금양초등학교에 야외물놀이장(위)을 설치했다. 동래구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얼음물을 나눠줬다.

각 지자체 제공

나눠주고 있다. 구청의 ‘얼음물 캠페인’에 지역 대형마트도 얼음물 협찬으로 호응했다. 동래구는 메가마트에서 생수 1500개를 제공받아 오는 10일까지 길을 걷는 주민들에게 얼음물을 제공하며 폭염 대처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북구도 지난달 말부터 ‘뽕머들이벤트’라는 이름으로 고려층이 많이 드나드는 구포시장 일대에서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부산 전역의 살수차들은 여름 퇴약철에 달아오른 도로에 수시로 물을 뿌리며 온도를 낮추느라 분주하다. 가야대로와 백양로 등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사상구는 지난달부터 ‘노면 살수 기동반’이 출격해 중심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자 기장군은 3일 지역 전체 마을경로당 274곳을 ‘24시간 주민 쉼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폭염 기간 마을경로당에 전기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소영 기자 mission@

(17.8-15.1)cm

▶ 7.30. 리더스경제 /

8.5. 부울경뉴스 /

8.6. 부산일보, 국제뉴스, 뉴스로, 아시아뉴스통신, 경향신문

## 【금정구, 주간 문화행사 ‘금정 문화 위크’ 개최】

부산일보

2018년 08월 27일  
104면 (사회)

# 동네에서 쉬엄쉬엄 문화 누려요

## 29일부터 ‘금정 문화 위크’ 서동미로마을서 이색 행사

부산 금정구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간 문화행사인 ‘금정 문화 위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9일 금정구 서동 미로마을에서 ‘미로예술마을, 문화로 논 데이(Day)’가 축제의 막을 연다. 미로마을 곳곳의 빈 공간에 청년예술가들이 상상력을 불어넣는 ‘빈-집아트’, 좁은 길을 활용한 주민 생활 밀착형 퍼포먼스인 ‘1평 콘서트’ 등이 마련된다.

이튿날인 30일에는 아파트 단지에

작은 음악회가 찾아간다. 부곡동 대우 아파트 단지 내 유희공간에서 열리는 ‘소담소담, 여름콘서트’에서는 팝페라와 어쿠스틱 공연, 마술쇼 등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이마트 금정점 앞 광장에서 저글링과 서커스 공연, 버블쇼 등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금정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리는 ‘오이소! 잼잼공장’에선 지역 생활문화동호회의 발표 공연 ‘잼잼쇼케이스’를 비롯해 생활문화 일일 수업 ‘더 잼잼 클래스’, 전시체험 부스 ‘골든 핸드 테이블’, 휴식·놀이 공간 ‘잼잼 아틀리에’ 등이 주민들을 반길 예정이다.

민소영 기자 mission@

(11.5\*9.7)cm

- ▶ 8.24. 베타뉴스, IBS중앙방송 /
- 8.25. 코리아닷컴, 국제뉴스, BNN /
- 8.27. 부산일보, 리더스경제, 부울경뉴스, 국제신문

##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 부산일보

2018년 08월 28일  
08면 (종합)



올해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받은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가운데 건물). 부산시 제공

### 2018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부산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산다운 건축상’의 올해 대상은 지역의 낙후한 건물을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훌륭하게 재생시킨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금정구 장전동, 설계자 ㈜에스티에이건축사사무소 정민교)가 선정됐다고 부산시는 27일 밝혔다. 이 건축은 화려한 외관보다도 평범한 낯은 시설을 확장해 청년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상은 일반 부문에서 투명한 실내 공간과 주변 자연경관을 잘 섞어 놓은 ‘민락동 근린생활시설’(㈜기가건축사사무소 안용대)과 해안의 밝은 햇살과 멋지게 어울리는 ‘일광 근린생활시설’(라움건축사사무소 오산욱), 공공 부문에서 동구 산복도로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시설인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지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김영·TNT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태훈)가 선정됐다.

‘부산다운 건축상’은 21세기 해양 도시 부산을 더욱 부산답게 만들고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 건축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시가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 1, 금상 3(일반 2, 공공 1), 은상 3(일반 1, 공공 2), 동상 3(일반 2, 공공 1) 등 총 10개 작품이 선정됐다.

은상은 일반 부문의 ‘고촌리 단독주택’, 공공 부문의 ‘해운대 인문학도서관’과 ‘영도월점센터’가 선정됐다. 동상은 일반 부문의 ‘광안동 근린생활시설’과 ‘화명동 근린생활시설’, 공공 부문의 ‘기장군 철마면 부산치유의 숲 방문자센터’가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건축제 건축주간에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관에 전시된다. 백태현 선임기자 hyun@

(5.6×31.3)cm

- ▶ 8.27. 연합뉴스, 경향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제신문, 아시아 뉴스통신, 부울경뉴스, 뉴시스, 뉴스1, IBS중앙방송, BBS, 서울경제 /
- 8.28. BNN /
- 8.29. 국제신문, 글로벌뉴스통신

## 【금사회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국제신문

2018년 8월 27일  
이문 (종합)

# ‘도시재생사업’ 날개 단 금사·온천

### 정부, 전국 99곳 사업지 발표

부산 7곳·반송2·영주동 포함  
경남, 남해·창원·김해 등 8곳  
울산은 남구 옥동 등 모두 4곳

부산·울산·경남지역 19곳을 포함한 전국 99곳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아나연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

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시행 규모(68곳)보다 대상지를 대폭 확대했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거나 공공기관 부지·민간투자·기금 활용 등)는 7조9111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는 9738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사업 대상지 99곳 가운데 69곳

을 사·도에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를 포함했다. 이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170곳으로 늘었으며, 빠르게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부산지역은 ▷금정구 금사동 ▷동래구 온천1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해구 신명1동 ▷중구 영주동 ▷연제구 거제동 ▷서구 동대신2동 등 7곳이 선정됐다. 4곳이 선정된 울산지역은 ▷남구 옥동 ▷동구 서부동 ▷울주군 언양읍 ▷중구 병영2동 등이다. 경남은 8곳이 뽑혔다.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를 비롯해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 ▷김해시 삼안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합양군 함양읍 용평리 ▷통영시 정량동 ▷사천시 대방동 ▷산청군 산형읍 산형리 등이다.

이밖에 선정된 뉴딜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됐다.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 기생형, 중심 시가지

형, 공공기관 재안형)은 정부가 선정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으로 사·도가 선정한 사업이다. 중·대규모 사업의 경우 부산은 2곳(금사동, 온천1동) 울산 1곳(옥동) 경남 3곳(남해,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 김해시 삼안동)이 포함됐다.

서울지역은 당초 중·대규모 사업 3곳과 소규모 사업 7곳 등 모두 1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대상지가 투기지역에 포함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어 대항사업 3곳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 관리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용 기자 [mlee@hooik.co.kr](mailto:mlee@hooik.co.kr)

▶관련기사3면

CS 4-15.5xcm

- ▶ 8.31. 경향신문, 조선일보, 프레시안, CJ헬로, 머니투데이, 뉴시스, YTN, KBS, MBC, 노컷뉴스, 코리아닷컴 /
- 9. 1. 국제신문, 아시아뉴스통신, cnb뉴스 /
- 9. 2. 국제뉴스, 중앙일보, 리더스경제, 국제뉴스, 아시아투데이, 부울경뉴스 /
- 9. 3. 부산일보, 뉴스로, 브레이크뉴스, TBN, CJ헬로

## “복지 패러다임 변화 주도적 역할 기대”



박상민(왼쪽) 할아버지와 이명애 사회복지사가 부산 금정구 수림로 72번길 구서1동 주민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금정구 수림로 '구서1동 주민센터'

지난 7일 부산 금정구 수림로72번길 구서1동 주민센터를 찾은 박상민(77) 할아버지는 직원들에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이곳을 찾은 박 할아버지는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15년 전 갑작스레 왼쪽 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오면서 말하기가 버거워지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넉넉지 않던 생활에 병까지 찾아오자 박 할아버지는 더욱 암울해졌다. 집도 없이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아가다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그였다.

주민센터는 올 6월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박 할아버지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처음엔 주민센터의 도움마저 거부했지만, 주민센터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그는 올 7월 여관살이를 끝내고 저렴한 전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주민센터에서 내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생활도 덩달아 바뀌기 시작했다. 생기를 되찾은 박 할아버지는 주민센터에 들러 책을 빌려 가기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도 점차 되찾아가고 있다.

구서1동 주민센터 박서인 복지팀장은 복지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박 팀장은 “사혜적이고 일시적인 복지보다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부산일보가 계속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14.2-17.8cm)

## 【금사교차로, 부산 최초로 도심지에 컬러유도선 설치】

**K** 국제신문

### 금정구, 부산 최초로 도심지에 컬러 유도선 설치

국제신문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입력 : 2018-09-13 13:40:46

부산 금정구가 컬러 차로 유도선을 설치해 시선을 끌고 있다.

금정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심지 내 중심도로에 컬러 차로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컬러 차로 유도선을 설치한 곳은 금사교차로다. 이곳은 개좌로와 반송로 방향의 차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특히 외차인의 경우 주행 방향에 혼란을 겪어 민원이 많았다.



· 금정구 금사교차로에 설치된 컬러 차로 유도선. 금정구 제공

금사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김미영 금정구청장이 구의령 시절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경찰청 교통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과 협의하며 결실을 맺었다. 그간 컬러 유도선은 고속도로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였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금사교차로 컬러 유도선 설치로 추후 귀성객들이 기존 등계 문전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 ▶ 9.13. 국제신문, 노컷뉴스, 부산일보, 국제뉴스, 한국공보뉴스, 코리아닷컴, 전국뉴스, 로컬세계, 뉴시스, IBS중앙방송, 공유경제, 국민안전방송



## 금정구, 금사동 → 금사회동동 명칭 변경

### 내달 1일부터 새 행정동 적용

부산 금정구 금사동의 행정동 명칭이 다음 달 1일부터 '금사회동동'으로 바뀐다. 이로써 회동동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금사회동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정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동 명칭 변경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 5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동네에 두 개의 이름표가 달린 이유는 행정상 편의에 따라 거주지를 나누는 '행정동'과 법률로 지정된 '법정동'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동은 법정동을 쪼개거나 묶어서 만든다. 행정동은 또 법정동을 재편성한 뒤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단위가 된다.

그동안 행정동인 금사동은 '금사동'

과 '회동동' 2개 법정동을 관할했다. 법정동은 정부 기관의 공부, 토지 구획, 지적도,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등 법률행위 전반에서 사용되는 주소지이다. 이 때문에 회동동 주민들은 실제 회동동이라는 이름의 지역에 살면서도 업무는 금사동 주민센터에서 봐야 했다.

금정구는 금사동 전체의 60.8%인 2676가구를 대상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 찬성 51.4%, 반대 39.0%의 결과가 나오자, 관련 조례 개정과 구의회 의결 등 절차를 밟았다.

금정구는 이번 행정동 명칭 변경이 금사회동동 주민의 정서적 소속감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정구는 이전에도 청룡동과 노포동을 청룡노포동으로, 선동과 두구동을 선두구동으로 통합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11.6\*12.4)cm

- ▶ 9.27. 경향신문, 한국일보, 노컷뉴스, 매일경제, CJ헬로, TBN, 뉴스1, 리더스경제 / 9.28. 부산일보

## 【금정구, 소외이웃 중개센터 운영】

국제신문

2018년 10월 20일  
02면 (사회)

### 금정구선 동네슈퍼 주인도 '위기의 이웃' 찾는다

소외이웃 중개센터 19곳 설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운영  
주인이 주민센터 안내해 연결

부산 금정구 토박이 A(70대) 씨는 최근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출가한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뒤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관할영을 알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0만 원의 의료비는 기초연금만으로 감당하기 버거웠다.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뻔했던 A

씨가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건 동네 슈퍼마켓 덕이었다. A 씨의 잦은 외상에 슈퍼마켓 주인이 그 사연을 알게 됐고, 그 결과 A 씨는 동주민센터와 연계돼 지원을 받게 됐다.

금정구 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소외이웃 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나 생활고 때문에 이웃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는 '찾아가는 복지'의 일환이다. 중개센터는 총 19곳으로 동네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슈퍼 편의점 노후숙박업소

등이 지정됐다. 이곳 주민들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주민센터로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소외이웃 중개센터는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져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

금정구는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구별하는 매뉴얼도 만들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슈퍼나 편의점에서 외상, 라면 구입 등이 잦거나 ▷허름한 옷차림의 아동이 자주 보이거나 ▷여안숙 투숙객 중 월세를 장기 채납하는 경우 등이다. 중개센터는 이런 주민을 동주민센터에 알린다. 동주민센터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받

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을 찾아 지원한다. 소외이웃 중개센터를 통해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온 사례는 총 7건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찾았다고 해서 공장 경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퇴짜 어르신이 자녀들에 피해를 간다며 지원을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제도권 밖 어르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어르신과 연막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중개센터의 일"이라며 "효용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in.co.kr

02-1-01000

- ▶ 10.18. 부산일보 /
- 10.19. 한국공보뉴스, 부울경뉴스 /
- 10.20. 국제신문 /
- 10.22. 리더스경제

## 【환경미화원 ‘블라인드 면접’ 채용으로 비리 근절】

부산일보

2018년 10월 24일  
12면 (사회)

### 환경미화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면접’ 금정구, 운영 규정 개정 투명성 강화

올해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부산 금정구가 환경미화원 ‘블라인드 면접’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금정구는 최근 ‘금정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미화원 채용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금정구는 먼저 업무 수행능력을 중시하고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서류심사와 체력심사의 순서를 바꿨다. 체력심사로 채용 인원의 5배수를 뽑은 뒤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면접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면접관은 전과 달리 당일 위촉돼 사전에 응시자와 접촉할 가능성

이 줄어든다. 또 면접관에게 체력·서류 심사 점수 등을 주지 않고 응시번호와 성명, 자기소개서, 채점표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한다. 구청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만 발표하던 것을 모든 응시자의 단계별 심사 점수를 함께 공개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정 규정은 지난 19일 접수가 마감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부터 적용된다. 4명을 선발하는 이번 모집에는 모두 57명이 지원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개정이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조직 기강 확립과 노사 간 신뢰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강호 기자

(11.6~10.8)cm

- ▶ 10.23. 노컷뉴스, 국제뉴스, 코리아닷컴, 천지일보, IBS중앙방송 /
- 10.24. 부산일보, 중앙일보, 뉴시스, 부울경뉴스, 뉴스로, 부울경뉴스, KBS뉴스통신, 리더스경제, cnb뉴스

## 【금정구·금정경찰서 협업, ‘풋-SOS’ 비상벨 구축】

### 부산일보

2018년 10월 26일  
10면 (사회)

#### “페달만 밟으면 경찰 출동” 금정서·금정구청 협업 ‘풋-SOS’ 비상벨 구축

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로 페달만 꼭 밟으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비상벨 시스템이 금정구에 처음 도입된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금정구청과 협업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특성상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 등의 장소에 ‘풋-에스오에스(Foot-SOS)’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풋 비상벨은 강력 범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산대 발 밑에 설치된 발판을 5초 이상 밟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는 핫라인 신고 방식이다.

기존에 편의점 계산대 등지에 설치돼 운용 중인 ‘헬프폰’ 비상벨은 근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아야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아 더 나은 신고 방식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 신고도 많아,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을 받았다.

금정서는 다음 달까지 헬프폰이 설치됐던 편의점과 금은방 등 기존 업소 94곳과 범죄 취약지 38개소에 풋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성학 금정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구청과 협력해 금정구 방법 진단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핫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소영 기자 mission@

(5.6\*21.0)cm

- ▶ 10.25. 노컷뉴스, 매일일보, 뉴시스, 글로벌뉴스통신, 아시아투데이, 아시아뉴스통신 / 10.26. 부산일보, 부울경뉴스

# 금정구, 청소 대행업체 공개입찰

## 비리 의혹 차단 개선안 마련

부산 금정구청이 1988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청소 대행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들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지자체가 특정 생활 쓰레기 위탁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등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전횡을 막고자 내놓은 대책이다.

금정구청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1~2곳을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대행업 허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기존 1~2개 업체의 독점 대행구조에서 나오는 임금 문제 등 각종 부작용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도맡아 온 청소대행업체들이 관련법과 정부 지침 등을 어기며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등의 비리 의혹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금정구와 계약을 맺고 30여 년 가까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 2곳은 최근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인건비를 빼돌렸다가 경찰에 첩보(본보 지난 5일 자 12면 보도)를 맞았다.

이에 금정구는 생활폐기물 처리 구역을 현행 2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나눈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신규 업체에 추가로 청소대행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여기에 매년 업체별로 청소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듬해 계약 때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해당 업체의 희망 청소구역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소영 기자 mission@

(11.5\*12.4)cm

- ▶ 10.31. 부산일보, 연합뉴스 /
- 11. 1. MBC, 브레이크뉴스 /
- 11. 3. 코리아닷컴, 국제뉴스 /
- 12.26. 천지일보, 부울경뉴스, IBS중앙방송, BBS,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한국공보 뉴스, 부경신문



## 【노포동 고분군 청동기 전기 유적 첫 발굴】

국제신문

2016년 11월 17일  
이경 (종합)

# 노포동 고분군 청동기 전기 유적 첫 발굴

주거지 3기-유물 등 발견  
학계 "역사적으로 큰 가치"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분군에서 청동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포동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가 알려진 이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학계의 관심도 쏠린다.

금정구는 삼한 시대 고분군으로 유명한 노포동 일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해 청동기시대 대형 직사각형 주거지 2기와 원형 주거지 1기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정구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1일부터 노포동 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 부산박물관은 이곳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해 구상유구와 수혈(흙웅덩이) 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았다.

부산박물관은 이번에 발견한 주거지 중 2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이라고 발표했다. 직사각형 형태로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11.4 × 3.7m, 12.2 × 2.9

m에 달하는 대형 주거지다. 또 주거지 내부에서 난방이나 요리용 하려고 반복적으로 불을 피운 흔적과 목장예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받, 배 이상을 때는 데 쓰이는 반달돌판 등도 나왔다.

다른 1기(원형)는 청동기 후기 유적으로,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송국리(충남 부여군)형 주거지다. 지름이 7.5m로, 부산박물관 측은 수혈갈 수계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 주거지 중 최대급이라고 설명했다.

노포동 고분군은 1983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된 토기 3점이 부산시에 신고되면서 그 역사적 의미가 전파됐다. 이후 1984년부터 1988년까지 2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시행됐다. 그 결과 노포동 고분군에서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분묘 유적으로 복파요를 주축으로 하는 묘제와 함께 와질토기 칠채무기류 장산구가 다양 출토됐다. 이를 통해 노포동 고분군은 부산지역뿐 아니라 영남권 일대 삼한 후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요성이 인정된 1996년에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됐다.

이번 발굴 성과에 대해 학계는 노포동 고분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새로 쓰게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박물관 안해성 학예연구사는 "채송 발굴 조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청동기 전기의 유물이 발견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다"며 "부산에서 청동기 유물이 확인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노포동 고분군에서 전기의 학술 조사를 한다면 추가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원명기자 [meto@hokje.co.kr](mailto:meto@hokje.co.kr)  
▶ 관련기사 3면

(172)15.8cm

- ▶ 11.16. SBS, 연합뉴스, 노컷뉴스, 매일경제 /
- 11.17. 국제신문, KNN /
- 11.18. MBC, 천지일보 /
- 11.19. 부산일보, 부울경뉴스, IBS중앙방송, 아시아뉴스통신, 국제뉴스, cnb뉴스, 뉴스1, BNN, 뉴스로, 국민안전방송

## 【금정구 3기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동】

국제신문

# 탈북아동 돕기, 놀이터 관리...청소년 손으로 만든 조례

2018년 11월 10일  
본문 12쪽(월요일)

3기 금정구 청소년의회 마무리 지역 초·중·고 38명으로 구성 조례 4건 직접 만들어 3건 통과 김재윤 금정구청장 "앞장 내용 실제 구정에 반영 검토할 것"



부산 금정구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금정구 청소년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금정구는 지난 10일 금정구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정구 청소년의회는 2016년 활동을 시작해 올해 3기 의회는 초·중·고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역 어린이·청소년 의원 38명(초등학교 12명 중·고등학교 26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원들은 지난 8월 위촉된 뒤 교육·안전·복지·문화·예술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로 나누어졌고, 정기회의와 워크숍 등 청소년의회 활동을 수행해왔다.

올해부터 금정구 청소년의회는 예 같은 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례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제정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김재윤 금정구청장의 의장, 정대영 금정구청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을 직접 만들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이 심사됐으며 3건이 통과됐다.

통과된 것은 > '금정구 탈북가정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금정구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안' > '금정구 인건형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며, '금정구 교동역차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안'은 논의 끝에 찬성 8표, 반대 14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청소년의원들은 "의회 활동

을 하면서 직접 지역을 돌아보고, 또래 청소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며 "직접 살펴본 내용과 주변 의견을 반영해 부족하지만 조례안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만든 조례안을 우리가 직접 심사해 통과시키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금정구 청소년의회가 1년간의 활동을 '조례 제정·심사'로 마무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금정구 감인경 구무관은 "1, 2기 청소년의회는 조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

무리했다. 제안된 정책은 해당된 부서에 검토해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일부 반영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소년의원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심사하도록 시스템을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참석할 실제 금정구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정구의회 김재윤 의장은 "청소년의원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토론을

발했다. 특히 조례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형식 기초의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어린이·청소년의 필요를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행정감사 등 사급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소년의회에 시달리던 조례를 살펴, 유아기엔 내용이 있다면 금정구의회 조례로 제정하는 등 최대한 청소년의회 의견이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민 학생기자 service

- ▶ 11.13. 부산일보, 한국일보, 코리아닷컴, 국제뉴스, 아시아뉴스통신, 천지일보, 부울경 뉴스, IBS중앙방송 /
- 11.14. 국제신문, 리더스경제 /
- 11.20. 국제신문

## 【메이커 스페이스 ‘주니어 캠퍼스 팸랩금정’ 개소】

국제신문

2018년 11월 29일  
12면 (경제)

# 찾아가는 트럭 ‘메이커 교실’... 中도 노하우 배워

팸몬스터 등 개발 이동식 교육  
강연 늘어 강사 고용창출 효과도

메이커 공간이 1t 트럭 안에 구현됐다. 1t 트럭 안의 메이커 공간은 한 번 교육하는 데 최대 140명이 수강할 수 있어 메이커 강사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28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1t 트럭(사진)이 메이커 서클이 도착했다. 이날은 금정구청 ‘주니어 캠퍼스’ 개소식이 열린 날이다. 메이커 공간을 금정구청 내에 마련한 것으로, 메이커 서클에서 기초 교육을 이수



한 시간이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메이커 서클은 지난달 메이커스튜디오 운영 기업 팸몬스터와 부산인재명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전기 공급 장치와 장비 흔들림 방지 등 다양한 기술이 들어갔다. 예산 1억원

을 들여 완성했다. 메이커 교육의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팸몬스터 이동훈 대표는 “학교차원에서 단체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 관련 정보가 없어 학생 개인이 찾는 경우도 있다”며 “트럭에 기초 교육 장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메이커 서클을 운영하는 효과는 크다. 트럭 안에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용접 전자기(아미지 복사 장비) ▷3D 펜 ▷VR(가상현실) 장비 등이 있다. 교육은 서너 시간 단위 7개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140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 한 번 교육하는 데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어 교육 강사 채용도 늘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강의별로 강사 2명이 필요해 1회 교육에 14명의 강사가 붙는 구조”라며 “메이커 서클이 움직일 때마다 요청 기관이나 학교에서 강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선전(심천)에도 진출한다. 트럭에 장비를 구현하는 기술의 이전을 현재 선전의 메이커스튜디오와 논의 중이다.

부산인재명생교육진흥원은 내년 메이커 관련 강사 육성에도 나선다. 인재명생교육원 박영미 원장은 “메이커 서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예약이 한 상황”이라며 “강사를 육성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부산 전 지역 학교에 메이커 서클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재 기자**

(23.1.14.0cm)

- ▶ 11.28. 부산일보, IBS중앙방송 /
- 11.29. 부산일보, 국제신문, 리더스경제, 아시아뉴스통신 /
- 11.30. 부울경뉴스

## 【범어사 하행구간 양방통행로 개통】

**BUSAN** 부산일보  
.com

### 범어사 하행 구간, 양방통행로 개통한다

입력: 2018-12-03 [10:09:36]   수정: 2018-12-03 [10:11:35]   게재: 2018-12-03 [10:11:35]



회전교차로와 보도 정비 사진. 금정구청 제공.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일방통행만 가능했던 범어사 하행 구간을 오는 7일 9시부터 양방통행 개통한다.

범어사 하행로 양방통행 사업은 하행 구간 취락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금정산과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었다.

총사업비 39억 원(국비 34억 원, 구비 5억 원)을 들여 기존 일방통행로 1.85km 구간 정비 및 확장(B=12m→16m)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활한 차량 양방통행을 위해 범어사 주차장 일부를 정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며, 보행 등산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 난간도 설치했다.

이번 범어사 하행로 양방통행 개통을 통해 일방통행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들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관 예정인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템플스테이, 선문화체험 등 내·외국인의 관광테마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상권 부흥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 ▶ 12. 3. 부산일보, 노컷뉴스, 코리아닷컴, 부울경뉴스, 국제뉴스, 천지일보, 리더스경제, TBN, 브레이크뉴스, 에버뉴스, 연합뉴스, 부경신문, CJ헬로 /
- 12. 4. 뉴시스